



## 2001년도 ITU 이사회

이용석

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실 국제기구담당관

### 1. 회의 개요

제57차 2001년도 ITU이사회가 지난 6월 18일부터 2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ITU 본부에서 46개 이사국 대표단 및 회원국 옵서버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러시아 Yuri Grin 의장 주재로 개최되었다. 이번 이사회는 본회의와 2개 분과위원회(재정 및 인사)로 구성되어 98. 10월 미국 미네아폴리스 ITU 전권위원회에서 결정된 ITU의 재정, 인사, 주요 전략 및 정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보사회에 관한 세계정상회의의 개최방안, 2002/2003년도 사업검토, ITU 표준화 및 개발 부문의 구조 및 기능 개혁방안 등을 주로 논의하였다.

우리나라는 노회도 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전파연구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통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및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 1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가하였는 바, 회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 2. 회의 주요 내용

#### 가. ITU 이사회 의장 개회사

Yuri Grin 의장은 자신이 의장으로 선출된 데 대해 이사국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명하고 90년 이후 전기통신사업의 민영화 등 전기통신분야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ITU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금번 이사회는 2002년 전권위원회(2002. 9월 모로코 마라케쉬 개최예정)의 전년도에 개최되는 회의로서 ITU 조직개혁, New Initiative 프로그램 강화, ITU와 여타 국제기구(WTO, ETSI 등)와의 관계정립 등에 대해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나. 정보사회에 관한 세계 정상회의(W SIS : 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 개최

##### (1) 사무총장의 소개

Y.Utsumi 사무총장은 UN 사무총장이 주재할 계획으로 있는 “정보사회에 관한 세계정상회

의”와 관련하여 지난해 이사회가 요청하였던 정상회의 주제와 목표, 기대효과, 시기 및 장소 등에 대한 세부 검토내용을 아래와같이 밝혔다.

〈정상회의 개최계획〉

- 일시 및 장소 : 1차(2003년 12월경, 스위스), 2차(2005년, 튀니지)
- 참석대상 : 정부 수반, UN 산하기구 사무총장, 산업·언론·NGO의 지도층 인사
- 목표 : 범세계적 정보사회에 관한 비전과 이해를 공유
- 주요 논의주제 (1차 회의)
  - 세계 각국의 정보화사회에 대한 보편적이고 동등한 접근
  -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을 위한 정보사회의 역할
  -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시스템의 보안, 개인의 통신권리
- (2차 회의)
  - 정보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
  - 정보화사회의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의 채택

사무총장은 이어 WSIS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UN 관련기관 사무총장들이 참여하는 UN 고위급 준비회의(High Level Summit Organizing Committee, HLSOC) 의장에 자신이 선출되었으며, 조만간 ITU 및 UN 관련 기구, 개최국 관계관 등이 참여하는 준비 사무국(Executive Secretariat)을 발족할 것임을 밝히고 ITU가 WSIS를 주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이사국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2) 주요 논의내용

대부분 국가들은 회의개최국이 소요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조건하에서 WSIS 개최지로 결정된 스위스와 튀니지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다만 사무총장 및 스위스, 캐나다 등은 회의주최국의 비용부담 외에도 타 국제기구, 민간기업 등에서 소요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편, 미국과 모로코 제안에 따라 WSIS에서 논의될 주제 검토를 위해 조만간 장관급 레벨의 준비회의를 갖기로 하고 향후 ITU 사무국은 UN 산하에 구성될 예정인 준비 사무국의 WSIS 준비상황을 ITU website를 통하여 이사국들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기로 하였다.

다. 2002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WTDC) 개최

(1) 전기통신개발국장의 보고

H. Toure 국장은 WTDC는 4년마다 개최되는 ITU 개발 부문 최고회의로서, 2002년 3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2003년 정보사회에 관한 세계정상회의에서 논의할 정보격차 해소문제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하면서 2002년 WTDC와 관련한 일정, 장소, 의제 등을 명시한 결의초안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다.

(2) 주요 논의내용

이에 대해 이태리는 WTDC-2002 의제 중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하여 상세한 부속 의제를 만들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말리는 최빈국가에 대한 특별 지원조치를 구체화시켜 의제에 포함시켜줄 것을 희망하였다. 또한 중국은 디지털 격차해소, 정보보호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터넷 개발”도 의제에 포함시켜줄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각국이 제안한 내용들을 반영하여 WTDC-2002 의제안을 새로이 작성, 회원국에 통보하기로 하였다.



## 라. New Initiative 프로그램 추진

### (1) 배경

Y. Utusmi 사무총장은 취임후 표준화, 주파수 배분 등 통신기술분야에 치중했던 ITU 활동을 정책 및 규제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동 Program 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동 프로그램은 주로 전략기획워크숍, 전기통신 Case Study, 인터넷 정책수립 등으로 구성된다.

이의 일환으로 1999년부터 매년 2회에 걸쳐 정보통신 주요 현안에 대한 전략기획 워크숍 (Strategic Planning Workshop)을 개최하여 오고 있다. 워크숍은 ITU 사무국을 중심으로 관련 현안의 기술적, 경제적, 규제적 측면을 포괄하는 기초 보고서(Background Paper)를 작성하고, 3~4개 주요 국가에 대한 Case Study를 수행한 뒤 이를 토대로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회의결과는 의장보고서(Chairman's Report)로 정리되어 향후 ITU의 관련 부문활동과 중장기 전략계획 수립의 기초로 활용된다.

크숍을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 선호 의제 : 초고속인터넷, IMT-2000, 통신시장 경쟁정책, 인터넷융합, 통신망보안, 인터넷 peering & transit, M-commerce 등

### 마. 범세계적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노력에 대한 ITU의 참여문제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대다수 선진국가는 ITU가 국제적 정보격차 해소노력에 적극적인 가교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특히 독일은 ITU가 G8의 정보격차 해소활동 (DOT Force)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알제리, 말리, 베네주엘라 등의 개도국들도 정보격차 해소문제는 개도국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ITU-D(개발국)가 작업그룹 설치 등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사무총장은 ITU의 인원과 예산이 부족하여 동 이슈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어려운 점을 호소하고 아울러 동 문제는 정치적 문제로서 ITU 사무국이 주도하기에는 어려움이

〈전략기획 워크숍 개최경과〉

	개최시기	회의주제	비고
제1차	1999. 12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	
제2차	2000. 6	인터넷 전화(IP Telephony)	제3차 세계정보통신 정책포럼(WTPF)에 반영
제3차	2000. 9	유·무선 상호접속(Fixed-Mobile Interconnection)	전기통신 개발부문 규제개혁 보고서에 반영
제4차	2001. 5	초고속통신망(Broadband)	
제5차	2001. 9	차세대 이동통신(3G Licensing)	

### (2) 주요 논의내용

금번 이사회에서 많은 이사국들은 동 프로그램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사무총장에게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회원국들이 선호하는 아래 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2002년도에는 네트워크 보안(Network Security)을 핵심 주제로 위

있으므로 각 회원국 정부내 통신 고위층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하였다.

### 바. 유럽지역 방송협약 개정을 위한 지역 전파통신회의 개최

사무총장은 유럽지역내 디지털방송을 도입하

기 위한 주파수 조정을 위해 유럽지역 방송협약 개정을 위한 전파통신회의를 개최기로 하였고 보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말리, 이집트, 인디아 등은, 동 회의에서 논의될 주파수 조정은 주변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아랍 및 아프리카지역 국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동 회의에 아랍 및 아프리카 지역 등의 주변 국가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컨센서스가 형성되었으나, 참여대상 국가범위는 추후 ITU 사무국의 법률자문을 거쳐 확정시키기로 하였다.

한편 전체 회의기간은 2회에 걸쳐 8주동안 개최로 하였던 바, 1차 회의는 제네바에서 2004. 4~5월경 개최하여 방송협약 개정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며, 2차회의는 2005년 또는 2006년에 개최하여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작업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사. ITU 개혁작업반(WGR) 권고안에 대한 후속조치

ITU 조직의 효율화를 위해 그간 ITU 개혁작업반이 작성, 제출한 40여 개 권고안들에 대해 이사국들간에 2002 전권위원회 상정대상을 두고 첨예한 의견대립이 벌어졌다. 영국, 모로코 등의 이사국들은 WGR 보고서의 모든 권고안이 현장/협약 개정안과 함께 2002 전권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말리 등 일부 국가는 WGR 권고안 작업시 개도국의 참여가 저조하였으므로 금번 이사회에서 논의되어 승인된 권고안들만 전권위원회에 상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회원국간 논의를 거듭한 결과 권고안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일단 WGR의 모든 권고안은 2002년 전권위원회에 상정하되 각각의 권고안에 대해 이사회의 의견을 기술하여 제출하기로 하고 아울러 2002년 전권위원회에서 논의될 현장/협약 개정안 작성을 위한 Drafting Group을 구성하기로 하였던 바, 동 그룹

은 모로코를 의장으로 하고 금년말까지 WGR의 권고에 따른 현장/협약 개정안을 작성키로 하였다.

또한 동 개정안은 각 지역별로 이사국 50% 수준의 국가가 참여하여 지역별 의견을 수렴키로 하였다.

#### 아. 정보통신기술 자본기금(ICT Capital fund)의 설립

##### (1) 배경

ITU 재무국은 ITU내 정보통신시설(S/W)에 대한 투자개선을 위해 정보통신기술 자본기금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정보통신 기술 수요에 대한 1차 연구를 위해 2007년까지 2,300만 SFr이 소요되므로 우선 ITU가 보유하고 있는 준비금 계좌에서 200만 SFr을 인출, 이를 초기 자본금으로 하여 정보통신기술 자본기금의 설립을 승인해 줄 것을 이사국들에게 요청하였다.

##### (2) 주요 논의내용

동 기금은 주로 인터넷서비스 부문, ITU 활동지원을 위한 Extranet 구축, 인적자원 관리시스템 및 문서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사용될 예정으로서 미국, 일본, 프랑스 등 대부분 국가는 기금조성에 대해서는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ICT 자본금 설립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 독일, 러시아 등 일부 이사국들이 자금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준비금이 아닌 기존 예산에서 소요자금이 조성되어야 함을 주장함에 따라 소요예산을 기금으로 할 것인지 일반예산으로 할 것인지는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초기 자본금 200만 SFr에 대해서는 준비금에서 인출하도록 하였다.



### 자. 2002~2003 예산안

2002~2003 예산총액은 정규예산 333.2백만, 특별예산 12백만 Sfr으로서 주요 수입원은 회원국 분담금 66%, 부문화원 및 준회원 분담금이 13%, 사업을 통한 비용회수(Cost Recovery) 17%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회원국, 부문 및 준회원의 분담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책정되었다.

### 차. ITU 관련 회의일정

#### (1) 차기 이사회 및 전권위원회 등 일정

이사회는 향후 ITU 관련 회의 및 행사의 개최시기 및 장소를 아래와 같이 결정했다.

- 2002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WTDC) : 2002. 3월, 터키 이스탄불
- 2002년도 이사회 : 2002. 4. 22 ~ 5. 3, 스위스 제네바
- 2002 전권위원회 : 2002. 9. 23 ~ 10. 18(4주), 모로코 마라케쉬

#### (2) 우리나라가 주최예정인 ITU 관련 회의

ITU가 통신정책 및 규제분야에 있어서 국제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New Initiative 프로그램에 이사국의 일원으로서 기여하는 동시에 ITU 활동을 주도,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하여 아래 2개 회의의 국내 개최의사를 밝힘에 따라 참석 이사국들로부터 많은 지지와 높은 평가를 받았다.

- 〈ITU 아·태 지역 여성 정보화 훈련 워크숍〉
- 시기 및 장소 : 2001. 10. 22 ~ 26, 서울
  - 목적 :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여성 정보화 능력증진 및 고용촉진

- 대상 : 아·태 지역의 국가, 공공·민간 부문, NGO, 여성단체 소속직원 또는 동 기관들이 추천하는 여성 80여 명
  - 주관 : ITU 개발국 및 한국 정보통신부
- 〈ITU Network Security 워크숍〉
- 시기 및 장소 : 2002년 상반기, 서울
  - 목적 : 네트워크 보안 관련 기술표준 및 산업정책 논의
  - 대상 : 미주, 유럽, 아시아 등 관련 표준 전문가 100여 명
  - 주관 : ITU 표준화국 및 한국 정보통신부

## 3. 관찰 및 평가

### 가. New Initiative 프로그램에 기여

그동안 통신기술분야에 치우쳤던 ITU 활동을 정책 및 규제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중인 동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정보통신정책 및 규제를 홍보하고 새로운 규제이슈에 대해 주요 정보통신 선진국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유용한 기회로 판단되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며 특히, 우리나라가 2002년 상반기에 국내개최를 제안한 Network Security에 관한 워크숍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된다.

### 나. 정보사회에 관한 정상회의(WSS) 대비

WSS 개최지로 스위스(2003년)와 튀니지(2005년)가 선정되고, ITU가 UN 고위급 준비회의(HLOC)와 협조하여 동 회의를 주도적으로 준비하도록 확정됨에 따라 WSS 준비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현재 동 회의에 대한 주요국 정상 참석여부 등 그 성패를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정보사회라는 주제로 국제사회

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모이는 최초 행사라는 점을 고려, 동 회의 준비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IT 강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 다. ITU 개혁에 관한 아·태지역 입장수립을 주도

금번 이사회에서 개혁작업반이 제시한 ITU 개혁권고안에 대해 이사국간 합의도출이 무산됨에 따라 구체적 개혁방안은 내년 전권위원회로 이관되어 전면 재논의될 전망이다. 금번 이사회에서 표출되었듯이 ITU 개혁에 대한 국가간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움을 감안, 내년 전권위원회 개혁방안 논의시, 우리나라 단독 개혁방안 제안보다는 현재 APT 주도로 진행되는 아태지역 국가들의 ITU 개혁 공동결의안 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 것

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2002년 ITU 활동 적극참여

2002년에는 ITU 이사국 및 사무총장 선출 등 향후 4년간 ITU 활동을 결정할 전권위원회(2002. 9)와 전권위원회에 앞서, 동 회의의 중요 안건을 다룰 이사회(2002. 4), 세계전기통신개발 총회(2002. 3) 등 ITU의 주요 회의가 연속 개최될 예정이다.

따라서 상기회의에서 다루어질 ITU 개혁, WSIS 개최, Digital Divide 해소, ITU의 정책기능 강화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산업계, 학계와 정부간의 긴밀하고도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일관성 있는 입장을 수립, 대응하고 ITU 이사국 4선 진출을 위한 준비계획을 조기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야 함이 요망된다. 

### 메신저 표준화협회 출범

서비스 제공자마다 서로 다른 인스턴트 메신저 플랫폼을 표준화하기 위한 민간단체가 7월 5일 공식 출범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는 메신저 이용자들이 서비스 제공자에 관계없이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플랫폼 표준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네이버컴 디지털닷컴 라이코스코리아 미지리서치 버디버디 새롬기술 유니텔 프리챌 등 국내 인스턴트 메신저 시장을 주도해온 9개 업체는 7월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정보기기통신협회(ICA 가칭)' 창립식을 가졌다. 이날 창립식에서 9개사 대표는 ICA의 공식 출범과 함께 그동안 추진해온 ICA 운영 및 사업 계획, 메신저 표준안의 기본 방침 등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9개사 대표는 지난해 말부터 실무자급에서 지속적인 모임을 갖고 새로 출범할 협회의 성격과 사업 내용 및 회원사간 제휴 수위 등을 집중 논의해왔다. 국내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자는 6월 말 현재 1300만명에 이르지만 서비스 제공자마다 플랫폼이 서로 달라 메시지 호환이 불가능해 이용자 및 활용 분야 확산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한편 9개사가 현재까지 합의한 내역을 보면 앞으로 ICA는 참여 회원수를 단계적으로 늘려나가 인스턴트 메신저 플랫폼에 대한 업계 표준을 주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든 인터넷 기반 정보가전 단말기의 표준화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ICA는 또 협회를 정책과 기술 두 개 부문으로 구분해 표준화사업뿐 아니라 기반기술 개발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